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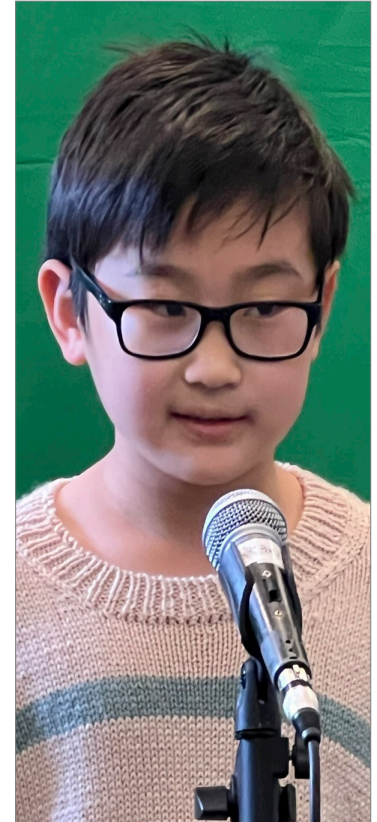


02
Feb. 2022
Vol.10 No.02

통권 90호

- 상반기 세례/입교
- 주안에만남
- 코람데오 / EM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성경암송에 참가한 학생들. 엄우진(왼쪽부터), 조아인, 조리디아, 박한결 어린이.

가슴에 새긴 하나님 말씀... 40여명 '암송' 도전

■ 주안에세마장학회

주안에세마장학회 성경암송 첫 평가가 2월26일 벨리채플과 27일 오후 OC채플에서 열렸다.

주안에장학회는 종전 고교12학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와 교회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지난해부터 성경암송 실적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ICY, EM 대학생과 신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금년 첫 암송에도 4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지난해 못지 않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 성경암송 장학금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금년 세마장학회에서 지정한 성경암송 범위는 신명기 6:1-12, 마태복음 5:1-20, 시편92, 27편, 에베소 6장, 하박국3장, 잠언3장(가산점 부여) 으로 매달 마지막 토요일(벨리채플) 주일(OC채플) 심사위원들 앞에서 암송해 평가 받으면 된다.

암송이 끝나는 금년 7월중 최종 평가를 마치고 가을학기에 맞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시작한 성경암송이 자녀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말씀이 될 것을 믿으며 3월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주기를 소망한다. 성경암송 참여와 문의는 담당 교역자들이나 장학위원회를 통해 할 수가 있다.

| 조용대 기자 |

■ 담임목사 대외사역

신앙의 본질 회복, 시간시간 성령의 역사가

■ 신학생·목회자 사경회

최혁 담임목사는 뉴저지주 소재 두나미스신학대학교(총장 최영식 목사, 학장 김희복 목사)가 주최한 신학 수련회 강사로 초빙 받아 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2박3일 동안의 일정으로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했다.

"본질"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번 신앙사경회에서 최혁 목사는 모두 일곱 차례의 강의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과 변질, 분향의 본질, 인간의 본질, 보혜사의 본질, 광야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의 돌아 갈 것을 호소했다.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찢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찬양으로 큰 은혜를 체험했다. 최혁 담임목사는 "사경회를

위해 주안예교회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조용대 기자 |

■ 건강 세미나

건강 100세시대 '꿀팁' 소개

지난 1월 31일 주일 예배 후 벨리채플에서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는데 100여명의 교회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셔서 열심히 경청하셨다. 강사로 섬겨주신 김학준 성도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꿀팁과 특별히 자신의 전공분야인 호르몬에 관하여서 깊이있고 다양한 설명을 해 주셨다 <관계기사: 9면>

| 임용자 기자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Ted Kim/박성은 집사(유아세례: 김태민)



이우석/이경빈 집사(유아세례: 이채유)

■ 페이스신학교 제리 하먼 총장 주일예배 설교



페이스신학교(메릴랜드) 총장 제리 하먼 목사(그레이스 바이블 침례교회 담임목사) 가 지난 2월 6일 주안예교회를 방문 주일예배 설교를 전했다. 마태복음 27장을 본문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갈보리 십자가의 기적' 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새롭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 조용대 기자 |

■ 임마누엘 성가대(벨리)

‘2년만에 성전 가득한 찬양’ 준비·연습 시작

전염병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의 의무화로 모든 활동을 멈춰야했던 임마누엘 성가대가, 위드코로나에 발 맞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2022년에 새롭게 임마누엘 성가대를 이끌어가실 조용대 국장을 비롯해서 총무와 각 파트별 파트장들이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랜 공백의 시간을 뒤로한 채, 새롭게 다가올 일정들을 의논하면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두근거림을 경험했다.

예배당 가득히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그리워하는 교우들과 직접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은혜와 감동을 잊지 못하는 성가대원들의 오랜 바람에, 보상처럼 더욱 아름다운 선율로 돌아올 임마누엘 성가대의 웅장한 멜로디를 기대한다. | 오희경 기자 |



유아세례 축복합니다



장주성/김지연 집사(유아세례: 장하성)



윤하권/이다이 집사(유아세례: 윤서아)

■ 주안에만남(벨리)



설교말씀이 좋아서... 친구들 행복한 모습 부러워...

지난 2월 13일 주일날, 벨리 주안예교회에서는 제 22차 주안에만남이 있었다. 새가족을 맞이하는 새가족국에서는 오늘 저녁 참석하실 한분 한분이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소망했다.

김진석 국장의 식사기도로 시작된 주안에만남은 다른 어떤 기수보다도 재미있는 농담과 웃음소리로 인하여 무척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새가족들이 진행해 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최혁 담임목사는 교회의 비전 및 목회철학과 함께 주안예교회 역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양이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

씀대로만 목회를 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주안예교회가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말씀에 따라 내려놓아야 하며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각자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설명해 주셨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나라에서 상급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책임이며 목적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새가족들은 자긍심과 함께 좋은 교회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주안예교회에 새가족이 된 강태성

장로와 강영권 권사는 등록하지 않은채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다 6개월 기도 후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고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한다. 조명희 집사는 코로나 시작전부터 조용히 1부예배만 참석하다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던 중 최혁목사님의 설교말씀 중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유석, 김현경 집사 부부는 주변 친구들 중 세 가정의 몇년 전 주안예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을 몇년간 지켜보면서 변화되어가는 친구들과 가정의 모습들이 놀랍고 너무 부러워 주안예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원희 목사와 임수덕 사모는 한국에 살

입교·세례 축하합니다



Seobin Yun



Joanne Seol



Alice Lee



Timothy Yoon



이윤아 성도

■ 주안에만남(밸리)



찾아온 동기는 다르지만 ‘행복한 주안에 한가족’

때에 할아버지는 유명한 절의 스님이었으며 온통 주변 환경도 불교의 영향이 매우 컸으나, 미국으로 빠져나오는 바람에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다고 개인적인 고백까지 하였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며 주안에교회에 처음 온 날이 등록일이며 오자마자 기도국에 등록을 하였다 한다. 기도의 목적은 최혁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오대양, 육대주를 덮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인생의 남은 여정을 평안한 교회로 인도되어서 더없이 감사하다고도 하였다. 또 어떤 초신자 분은 건물의 모양이 좋아 무작정 들어왔더니 건물처럼

목사님도 좋고 교인들도 좋다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정창언, 정지혜 집사 부부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안에교회로 인도 하셨는데, 특히 아들 풀이 대단한 교회가 있다며 인도한 곳이 우리교회가 되었다고하며 이렇게 따뜻한 교회를 처음봤고 목사님의 따뜻함에 감동하였고, 무엇보다 아내가 너무 행복해 하니 한 영혼 구원하는 심정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하여 웃음꽃이 피었다.

이번 22기 주안에만남 20여명의 새가족들의 내일을 꿈꾸며 믿음의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임용자 기자 |



입교·세례 축하합니다



■ 유아세례 부모의 기도

작년 11월, 자녀계획이 없었던 저희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채유를 보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둘째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채유가 태어난지 몇주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유아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

께서 채유를 위해 계획하셨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소유물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의 신앙고백에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채유가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 언젠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 이경빈 집사 |



신욱 성도

■ 코람데오 기차여행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는 행복을 싣고

지난 2월 12일, 코람데오(한어 청년부)가 모여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부에나 팍 역에서 출발하여 오션 사이드를 거쳐 산 클레멘테까지의 여정은, 멋진 풍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기차는 사랑을 싣고'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22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코람데오를 응원한다.



기차에 탑승하며 가득한 기대와 설렘으로 계획한 하루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저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번 코람데오의 기차여행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지를 떠나 기차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풍경들, 즐거운 게임의 시간들 그리고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먹거리 등, 함께 해서 더 좋았고 함께 해서 더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저희가 탑승한 기차는 한 정거장 한 정거장씩 떠나고 또 각 목적지에 도착 하듯이 믿음의 여정이란 삶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곁으로 한 정거장 씩 다가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여정과 시간 속에 함께 하는 사람들

과 한 뜻으로 모여 서로 이끌고 격려하며 위하는 모습들 그리하여 기쁨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없이 귀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번 코람데오의 기차여행이 많은 기도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들로 준비되어진 것임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행을 마침에 있어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코람데오의 다음 정차역을 기대해봅니다.

| 송명진 성도 |

■ New Comers/ Cho Byung Ik Family

Hello, we're the Cho family. We are Cho Byung Ik, Inn Sung Hee, Cho Jang Hoon, and Cho Ha Yun. And our dog, Rocket. We feel blessed to have joined all of you at ICCC Church. We've recently moved to Northridge from the Los Angeles area, and it brings us joy to be a part of a rich tradition of walking with Jesus Christ. Pastor Choi's Christ-based sermons are truly his gift from the Holy Spirit. We feel so fortunate to be a part of his support and leadership. We hope to foster here the same kind of kindred spirit that is fully engulfed with the holy spirit of our Lord, Jesus Christ. As a Christian family,



"We're excited about God's plan"

we hope to continue to worship, praise, and fellowship with all of you. We're excited about God's plan and what He has in store for us with all of you. The blessings we have already received at ICCC Church are indicative of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e truly feel that as a Christ community, there is much work to be done, and we look forward to making God's plan work into fruition as part of the family of this congregation. Lastly, Psalm 133:1 resonates with our newfound meeting. Thank you for all your efforts in making our family feel welcome here at ICCC. God bless you, the Cho family.

EM Getaway



Fun and Fellowship at Rancho Ybarra Christian Camp

The long-awaited EM Getaway began on the morning of 2/12 Saturday with an ice breaker that tested the memory and recall abilities of many. One mistake at a name and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circle all over again!

Praise and the Word was passionate, and heart to heart fellowship filled the air. | Monica Kim |

"No noise of life, no outside distractions, just a time of genuine fellowship. Without a doubt, God keeps His promises: as we gathered and worshipped in His Name, He was there with us." - Paul Yang



EM Train Trip



Come join us for another getaway!

- A scenic ride on the Metrolink
- Fun & games and great fellowship
- An oceanside lunch exchange
- Stay tuned and sign up!

FUN AND GAMES

■ 섬기는 리더/ 조원 집사

함께 사역한 동료들마다 ‘한결같은 사람’ 칭찬

OC채플 청년 지도자 조원 집사님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평소 조원 집사님과 교류가 많은 분들을 면담하였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려준 조원 집사님의 성품을 명료하게 표현 할 키워드를 찾던 중 얼마 전 한 잡지에서 읽은 우분트(Ubuntu)란 단어가 생각났다. 이 말은 아프리카 반투(Bantu)족의 언어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던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란 뜻이라 한다.

조원 집사님과 함께 교회 일을 해본 분들은 한결 같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심성이 선하다”라고 평했다.

몇 분 만 간략히 소개하면 :

* MP 채플 당시 안수 집사회 회장이던 고용흠 집사님은 “조 집사는 안수집사회 총무로서 창의력이 많고 솔선해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회상하고

* 같은 목장 목원으로 활동하던 임병재 집사는 “몇 년



을 함께 활동했지만 변함없는 한결같은 동료였다”고 회상하였다.

* 니콜 전도사님은 “2남 1녀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성품이 좋고 특히 장녀는 엄마가 찬양 팀으로 활동하고 아빠가 교육부 부장으로 봉사하는 2시간동안 막내 동생을 매주 안고 업어서 돌보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소개하였다.

* 부인 김현경 집사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조원 집사를 알게 되었는데 대학 3년을 마치고 선교훈련과 선교 활동을 위해 1년간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 올 정도의 신실한 신앙심과 성실함에 감동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회상 하였다.

금년에 부인과 자녀들은 벨리 채플에 출석하여 교회를 섬기지만 OC채플 영커플 목장 목자로 임할로 OC채플에 출석하므로 교회 방침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조원 집사님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 나형철 기자 |

■ 아름다운 손/ 정인자 권사

섬김과 봉사의 주름살이 보석처럼...



여인들에게 손의 모습은 얼굴 만큼이나 잘 가꾸고 싶어하고 존중시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권신장에 목소리를 높여가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전제품이 고급화 되어가면서 여인들의 "네일아트"는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 이 시대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손을 소개하고 싶다.

말며느리가 아니면서도 시부모님을 불평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섬겨드렸고, 남편과 자녀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 부인과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한 정인자 권사님은 손주들까지 4대를 아우르며 최선을 다해 70여년을 살아 오셨다. 교회에서도 기도국에서 꾸준히 중

보기도를 해 오시고 부엌에서 50가정의 반찬을 일주일에 한번씩 준비하는 사역과 교회 행사에는 언제나 빠짐없이 주방으로 아침 일찍 출두하신다.

그 손에는 손톱에 메니큐어 한번을 발라보지 않으셨고 보석반지 끼워진 손을 뵈는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눈에는 요란하게 "네일아트"로 치장한 손에 비싼 보석반지를 낀 어떤 여인의 손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어쩌면 아주 성경적인^^ 손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같은 여인으로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기쁘고 마음이 흡족해진다.

| 김선희 기자 |

■ 믿음의 유산 계승/ 조총홍 장로

할아버지와 두 손자, 성경 읽기로 하루를 마감



매일밤 침실로 가기전에 손자들과 성경을 읽는 것이 햇수로 5년이 넘은 듯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새해 들어서는 ICY에서 새롭게 신약은 통독으로 연이어 구약은 읽은 후에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발췌해서 암송하는 숙제가 주어진다. 그리고 포상으로 장학금까지 받는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하도록 환경과 격려가 있는 주안에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 김선희 기자 |

■ 건강 세미나

'육체 · 정신 · 영적 건강의 조화를'

믿음의 말씀으로 시작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의 첫 번째로는 육체에는 음식과 잠, 휴식, 배설이 가장 중요한 건강상태를 증명한다고 한다. 정신은 평안한 마음과 고요한 묵상으로서 부정적인 것을 내어 보내야 하며 영적인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로 전도에 힘쓸 때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계 단절이며 우울증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두려움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만병의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면역력과 회복력을 충분히 주셨으므로 관리할 의무는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병의 원인은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하였다.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포기하며 살지만 치료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의문에 Dr.김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호르몬 균형을 정확히 내 몸에 맞추어



좁으로서 만병의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자연 호르몬 치료에서 현저히 효과를 보는 병은 당뇨병과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같은 교회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시간, 곧 건강골든타임은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이니 꼭 깊은 잠을 주무시도록 부탁드렸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기억력과 질병, 회복력, 면역력이 최고로 생성되는 시간이므로 수면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강조하였다.

세미나 후, 2차 세미나를 곧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 저기서 들려왔다. 김학준 형제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 김학준 전문의는...

주안에교회 첫 예배
말씀의 은혜에 빠져

작년 가을 즈음에 주안에교회를 섬기는 어느 권사님의 소개로 주안에교회를 찾게된 김학준 M.D는 첫 예배 설교 말씀 시간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그 날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한다. 당일 청년목장으로 들어가 예배 후 말씀나눔을 하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맛보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금요 영성 예배시간에 배우고 있는 로마서 강해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시작한 신앙 생활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조화로움으로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멋진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Chatsworth에 위치한 Cross Medical Center에서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김학준 M.D는 천연 호르몬 치료법(Bio-identical Hormone Replacement Therapy) 전문가이다. 많은 병들을 안전하고 내추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각종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 Youth Confirming their Faith

“I want my choices to make God happy”

My confirmation experience was something I would never forget. The amount of love and support I received from the church and everyone was unforgettable. Before the confirmation, I would always feel guilty about going to church because of how many times I turned my back towards God. However, the confirmation gave me the push to serve God without feeling any guilt and live through his word. I am so thankful for my family who has never given up on me and always helped me fix my relationship with God. I am thankful to God for giving me such a welcoming and loving community to worship him and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erve him. Serving through ICY OC was one of the biggest opportunities I got to serve God and I wish to do more. I will continue throughout



my college years and my adult years that I will worship God and serve him. In the light of receiving the confirmation, I want to live through God's will.

I want my choices to make God happy instead of making selfish decisions that will only benefit me. Although there will be and there has been instances where I doubt myself, I know God is always there for me and will always have my back.

| Irene Shin |

“I want to grow”

For my experience of getting baptized, first I was nervous since I didn't know if I was qualified or not to be baptized. I didn't really feel like I deserved to be baptized for my confirmation because it hasn't been long since I joined this church but also since I recently found God again during winter retreat. I'm really thankful for my mom because she signed me up for it and told me to go for it since she told me I would really know in my heart if I was ready or not. She was the person that always encouraged me with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helped me grow as a Christian I am now. I'm also thankful for God for letting me have the feeling of being baptized and feeling accepted not by just



him but by church as well. ICY and ICCG in general has treated me and my family so well that I'm thankful for God for letting us find this church and connect

again as a family with God as well. Now that I'm confirmed, I want to live in God's word more and build my relationship with God more since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 Alice Lee |

■ 신앙의 뿌리

'아멘 할아버지 추억'

어느 평범한 아침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글을 쓰지 않을수 없어 하던 운동을 멈추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매일아침 아이들과 학교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따라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아이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아이들을 보내고 아침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고 기록으로 남겨야 겠다 생각이 들었다. 8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 이민 오신 할아버지는 아들 6섯, 딸을 4을 두셨는데.. 나와 할아버지 사이에 사실 특별한 추억은 없다. 내 위로도 10여명의 손주,손녀 내 아래로도 10여명의 손주가 있어서이다. 그리고고도 30명 가량의 증손주, 큰 증손주가 딸을 낳아 5대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 나는 것은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이 떠나가라고 외치시던 할아버지의 믿음 고백때문이다. 그것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 - 멘' 하고 온 성전이 떠나가라 외치시던 고백이었다.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아멘 할아버지'라 불리웠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시던 아파트에 가면 이면지 뒤에 웬으로 빼곡히 성경 구절을 적어두셨던 것이 기억난다. 감사하게도 할아버지 아래로 5대 가족중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이 기독교 안에 있다. 목사 손주, 선교사 손주, 목사사모딸, 손녀 사모, 안수집 사남들, 장로손주등등 많은 자녀들이대를 이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가족 모두의 신앙이 기복주의가 아닌, 진정한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약속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는 가족 모두 되기를 기도한다.

오늘 갑자기 나의 오늘 있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의 고백도 한 몫 했다는 생각이 들며.. 믿음으로 아멘을 떠나가라 고백하시던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 류명수 기자 |



■ 마더와이즈

9주간 훈련 통해 인도자 6명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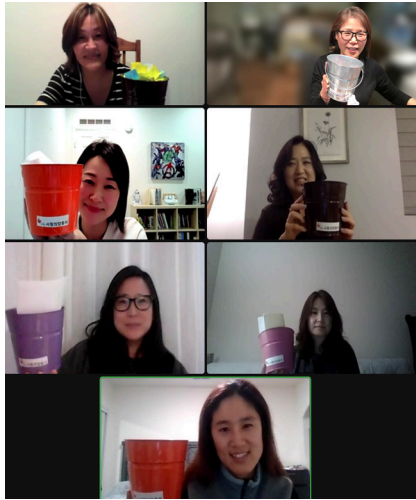
마더와이즈 "자유"편 인도자 훈련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Zoom으로 진행되었다.

평신도사역훈련원은 마더와이즈 과정을 주안에훈련원으로 편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인도자 훈련 과정을 진행했다.

6명의 예비 인도자들은 9주 동안 그룹 인도자인 양영 권사와 함께 훈련을 하며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자인 양영 권사는, "마더와이즈는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라고 새롭게 개편된 마더와이즈를 소개하며, 온 교회가 기도해주셔서 훈련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직접 인도해가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평신도사역훈련원에서는 이번에 마더와이즈 인도자 훈련을 수료한 예비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마더와이즈" 4기 훈련을 2월 24일부터 시작했다.

새롭게 개편된 마더와이즈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안에교회에서 일으킬 새로운 바람을 기대해본다.

| 이정미 전도사 |

■ 인도자훈련 소감 및 각오

새생명에 접붙임

포도나무의 원리는 참으로 심플하고 간단한 원리임에도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거부하고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이가치기 함으로써 포도나무에 원리 이신 새생명을 부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싹으로 거듭나 접붙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영적 성장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람의(하나님의 딸) 본분을 되새기며 훈련생님들과 함께 8주간의 여정을 동참하며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하나님의 문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 합니다.

| 이진화 집사 |

따뜻한 만남, '섬김은 내가 먼저'

밸리 26목장의 2월 아우팅 모습을 소개합니다. 매주 예배 후에 브니엘 카페에서 만나 얼굴을 보면서 커피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만 이어가기에는 아쉬워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맛집을 찾아가며 따로 모임을 마련하는데 목원 모두가 서로 먼저 섬기려하는 열정이 가득한 목장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 봅니다.

특별히 2월에는 오랜만에 다시 같은 목장에서 만나게 된 이성권 집사님과 이

정혜 집사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서 더욱 뜻 깊은 만남이었으며, 약간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식사시간에 이어진 풍성한 디저트 타임까지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삶속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찬국 장로님과 오희경 권사님께서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밸리 26목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을,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의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 밸리 26목장



■ OC 기도국

예배 전 한마음 간구

BP 채플은 공간의 협소로 기도국이 모일 수가 없었다. 플러튼으로 이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지난 1월 부터 기도국의 도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었다.

주일 예배 전에 모여 기도하며 하

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 하기를 힘쓴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위해 일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다.

함께 기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주일 11시 20분에 OC채플 교육부 교실로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에스더 기자 |



■ 음악 칼럼/ '내 주여 뜻대로'



처절한 고통 끝에 얻은 믿음의 고백

찬송가 549장(통431) '내 주여 뜻대로'의 가사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절절한 심경이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작사가인 벤야민 슈몰크 (Benjamin Schmolck, 1672~1737) 목사는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은 루터교 목사였다. 그는 30년에 걸친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 후 폐허가 되어버린 독일에서 목회를 이어나가며 신자들을 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심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잣더미가 된 자신의 집과 불에 탄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다. 절규하며 울부짖던 그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길고 긴 기도 끝에 새마음을 얻게 됐다. 다시 목회를 이어나가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실명하기도 했지만, 지팡이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감당했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슈몰크 목사의 기도는 기록되어 찬송가의 가사로 쓰이게 된다.

'내 주여 뜻대로'의 멜로디는 베버

(Carl Maria von Weber, 1786~1888)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Der Freischütz)」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이 오페라는 마법 탄환을 두고 벌어지는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오페라의 서곡에 찬송가 선율이 나오는데, 서곡(Overture)이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발레, 모음곡 등의 도입부에 연주되는 관현악곡으로 앞으로 전개될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찬송가는 홀브룩(Joseph Perry Holbrook, 1822~1888)이 1862년에 편곡하여, 찰스 로빈슨 목사가 펴낸 '성소를 위한 노래(Songs for the Sanctuary, 1879)'에 처음 실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집한 <찬양가, 1895>에 수록되었고, 장로교와 감리교 최초의 합동 찬송가인 <찬송가, 1908>의 번역 가사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 황성남 기자 |

■ 믿음의 시

영원을 여는 열쇠

영원을 여는 열쇠
애들아 잠을 사랑하자.
아름다운 꿈도 꾸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만나는 그것은
신명나는 긴 터널
밝은 새 날을 여는 입구.

애들아 잠을 사랑하자.
하루의 피곤이 거는 유일한 기대 잠이 없으면 안식도 없으리
그 곳은 이쪽 끝과 저쪽 영원이 만나는 문. 문을 열기 위하여 잠을 자자.
잠이 없으면 문도 없나니....

잠을 두려워 말자. 애들아!
피곤한 여로의 평온한 닻
그 곳이 인생의 종점은 아니리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듯이
잠이 있어야 꿈이 있고,
꿈은 빛나는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

오늘은 달게 자자. 애들아!
하루를 잘 뉘 사람은 단잠이 있고 또 단잠은 내일을 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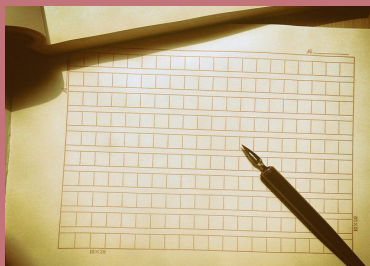
애들아 잠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잠을 사랑하자. 애들아!
영생의 문을 열기 위하여...

애들아!
이 분명한 두 가지
우리가 언제 잠든는지 모르는 것과 언젠가 모두 잠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살아 있는 것들의 축복이러니

잊지마라. 애들아!
기억하라! 잠들기 전에!
영원을 여는 열쇠가
네 심령의 주머니 안에 있는 가를!

예수와 함께 잠드는 자는 일어나리라!
예수와 함께 새벽의 여명의 잠을 깨우듯

임원희 목사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선희,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유영애, 이애스더, 이해운, 조용대, 황성남(기자) /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